

# “아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 1명에 최대 2억6200만원

###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 종합계획 발표...2028년까지 1889억 투입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공공주택...결혼·육아·교육 단계적 지원

영암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에 갈 때까지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민선 8기 역점 시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 (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시책은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문구를 내걸고 마련했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포함된다. 영암군은 오는 2028년까지 17개 부서를 통해

188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암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는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신혼부부에게는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00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90만원을 지급한다.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영암군은 아동 정책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암군 인구 5만2350명 중 아동·청소년은 9131명으로 17% 비중을 차지했다. 영암군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93명으로, 전년

(178명)보다 조금 늘었다. 영암군은 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 구조를 바꾸는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마련했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서 우선 청년·신혼부부 300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이 분양된다. 영암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한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 영암 관광지 맞춤형 결혼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 등을 제공한다.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50%까지 지급하며,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한글 배움 기

회를 제공한다. 임신부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영양제 보급,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살핀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교실을 운영하고,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한다. 장애인 가구 임신부에게는 자녀 돌봄과 집안일 지원을 하는 ‘홈케어’를 파견한다. 임신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

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보낸다.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굳히기 위해 12~48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0-12세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돌본다.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 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교실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영암군은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영암 어린이문화센터, 영암공공도서관을 신축 건립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

## 해남 ‘공모사업’ 성과 돋보이네

### 5년간 603건 6912억 확보 6.5배 증가...세일즈 행정 결실

해남군이 어려운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603건, 691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작 전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6.5배 이상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425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150억원),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148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올해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450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180억원), 공룡박물관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7억5000만원),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시설

(4억7000만원) 등 19건, 655억원을 확보했다. 이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 연초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남군은 2024년 정부예산안 분석과 정부의 공모사업 정책방향 교육을 비롯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등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중 공모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속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 ‘섬초’ 작황 부진에 가격 급등

### 생육 초기 집중 호우에 전년비 40% 감소...가격은 39% 올라



파종 시기인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신안의 명품 시금치 ‘섬초’가 발아되지 못한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의 명품 시금치 ‘섬초’가 생육초기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판매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4월 종료될 2023년산 섬초 출하계획량은 7100t으로 전년 1만 1829t 대비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섬초 파종시기인 지난해 9월 중순 신안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미발아 현상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안군에는 지난해 9월13-16일까지 4일간 섬초 주산지인 비금면 220.5mm, 도초면 158mm 등 평균 159.4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후에도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섬초가 물러

지고 녹는 현상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에 걸친 시금치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으로 판매가격은 8kg 한박스에 5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만1000원보다 39%가 올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신안 섬초의 누적출하액은 180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농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누적출하량이 3593t으로 출하계획량의 51%에 머물러 있다”면서 “계획했던 출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농가들의 소득 편차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 수소도시 조성 ‘속도’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재생에너지 등 특화 육성방안 마련

영광군이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 수립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정책이 부응하는 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수소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지역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산업 현

황과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등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가지고 영광군에 특화된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자동차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기반 구축사업과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등과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소도시 조성 과 수소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영광=김정환 기자 kcw@

## 귀촌 고민이라면...완도 농촌서 석달간 살아가기

### 신지 울모래·군외 스마트 치유마을 전담도, 주거·일자리 기회 제공 참가자에 월 최대 30만원 연수비

완도군이 ‘2024년도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시작했다. 완도군은 지난 5일 신지면 울모래 마을에서 전남도, 군, 마을 관계자, 사업 참가자 등이 모인 가운데 사업 계획 공유,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농촌에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가 농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비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신지 울모래 마을과 군외 스마트치유마을 등 2개소에서 각각 3기수 참가자를 모집해 3개월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지 울모래 마을은 가장 먼저 5명의 참가자를



지난 5일 완도군 신지면 울모래 마을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참가자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선정해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참가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연수비를 3개월간 지원하며 농촌 일자리 체험, 선진지 견학,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완도만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사람-반려동물 교감하는 ‘진도개테마파크’

### 연말까지 도그 스포츠 운영 홍보관·동물농장·놀이시설 갖춰 5월엔 ‘진도개 축제’ 개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진도군은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연말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훈련사 2명의 지도 아래 진도개 도그 스포츠를 진행한다.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은 오전 11시에 교감, 달리기, 장애물 경기 등 주말 진도개 도그 스포츠와 진도개 학습장을 운영한다. 주말 행사로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진도개의 영민함과 민첩함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견주와 진도개가 함께하는 장애물경기 ▲강아지를 직접 만지고 배울 수 있는 진도개 학습장 등이 마련됐다. 진도개테마파크에서는 진도개 홍보관, 사계절 쉼터, 진도개 놀이터, 미니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의 상징인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도 조성됐다.



진도군은 연말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평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운영한다. <진도군 제공>

한편 진도군은 오는 5월 초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10회 진도개 축제’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열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의 상징인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월 25만원

### 시, 인력난 해소 위해 1년간...신청자 선착순 모집

목포시가 지역 조선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25만원씩 지원한다. 목포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과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

에서 목포시로 전입한 뒤 목포지역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선착순 3명)가 조선업에 신규취업할 때 월 25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시청 지역경제과(목포시 양율로 203)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적합 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871)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적기 인력 공급 및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